

대학생활을 알차게

정희정*

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들어섰던 날과는 달리, 제가 다니게 될 학교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육을 받기 위해 처음 등교했던 날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대학에 붙었다는 기쁨도 잠시, '내가 과연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'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. 그러던 중 2006년 수시 합격자를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'Learn How to Learn'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
프로그램은 '비판적 책읽기', '리포트 작성법', '창의적 사고력 계



교육 프로그램

*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2006 학년, '신입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LearnHow to Learn' 참가자.

발', '시간 관리와 노트 필기 전략', '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', '자료 및 정보 검색'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좌는 '비판적 책읽기'와 '시간 관리와 노트 필기 전략'으로 그 강좌들은 제게 '이제는 대학생'이라는 해방감으로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생활의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. '리포트 작성법'과 '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' 강좌는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다른 대학교의 평가나 과제 앞에서 막막해질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6시간이 넘는 교육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, 지금 1학기도 다 다니지 않은 짧은 대학생활을 돌이켜봐도, 그날의 경험은 정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.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,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이렇게 대학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제게 더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
아쉬웠던 점은 각 강의에 배당된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입니다. 매우 개괄적인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틈틈이 그때의 교육 자료를 찾아보곤 하는 것을 보면, 각 강좌가 따로 심도 있게 실시되었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. 제가 이 프로그램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보며 참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동기들도 많았고, 심지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.

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대학생활, 탄탄한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'Learn How to Learn'뿐만 아니라,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·오프라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. 갓 들어온 신입생이 감히 말씀드리면, 대학은 스스로 찾아보고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, 매우 알찬 대학생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 함께 해요! 📚